

삼성 KPMG

ISSUE MONITOR

M&A로 본 석유화학산업

August 2020 | 제129호

삼성KPMG 경제연구원

kpmg.com/kr



M&A로 본 석유화학산업

Issue Monitor | August 2020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김주희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976
jkim206@kr.kpmg.com

엄이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통계로 본 석유화학산업 M&A 트렌드	4
글로벌 석유화학산업 M&A 동향	4
석유화학산업 Cross-border M&A 동향	5
석유화학산업 업종간 M&A 동향	6
주요국 석유화학산업 M&A 동향	8
사례로 본 석유화학산업 M&A 트렌드	11
석유화학 사업을 확대하는 석유기업들	11
석유화학기업들의 셰일가스 및 ECC설비 투자확대	14
미국기업에 주목하는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	16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과 스페셜티 포트폴리오 확대	18
비석유화학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21
결론 및 시사점	25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M&A 전략	25
① 공동 투자 등을 통한 협력과 M&A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함께 수립하라	26
② M&A를 통한 원료 다변화 전략을 검토하라	27
③ 석유화학기업과 PEF의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M&A에 도전하라	28
④ M&A를 통해 사업전환을 모색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준비하라	29

Executive Summary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원유 산유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유가 변동성 심화로 석유화학산업은 그 어느때 보다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의 미래 전략방향과 사업계획을 또한 자칫 위축되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효율적 자산을 적시에 정리하기 위해, 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기 위해 오히려 M&A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 통계로 본 석유화학산업 M&A 트렌드

① 글로벌 석유화학산업 M&A 동향

- 전 세계 석유화학산업 M&A 거래건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 727건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다운사이클(Downcycle) 우려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659건을 기록
- 거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M&A 거래액은 1,878억 달러로 최근 10년 간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글로벌 석유화학업계의 판도를 좌우할 만한 대형 거래가 최근 성사되고 있음을 의미

② 석유화학산업 Cross-border M&A

- 2019년 석유화학산업 Cross-border M&A 거래건수 비중은 41%에 달하고 있지만, Cross-border 거래액 비중은 26%로, 최근의 대형 거래는 자국내 거래에서 주로 진행됨.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Cross-border 거래는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③ 석유화학산업 업종 간 M&A 동향

- 석유화학산업과 이종산업 간 거래건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석유화학 기업들은 유통·물류, 자원·에너지, 제약·바이오, 전기·전자 소재기업에 대한 인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석유화학 기업을 인수하는 업종은 동종인 석유화학 기업을 제외하면 PEF와 같은 투자회사가 다수를 차지함. 또한 자원·에너지 기업들의 석유화학기업 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④ 주요국 석유화학산업 M&A 동향

- 미국기업에 대한 글로벌 화학업계의 매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본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Outbound M&A를 진행 중임. 반면 중국기업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이후 Cross-border M&A가 미진한 상황

| 사례로 본 석유화학산업 M&A 트렌드

① 석유화학사업을 확대하는 석유기업들

-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M&A를 통해 기존 석유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석유화학분야의 수직계열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고, 안정적 성장을 모색

② 석유화학기업들의 세일가스 및 ECC설비 투자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최근 투자가 주춤한 상황이나 석유화학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세일가스전, 세일생산업체 및 ECC 설비에 대한 인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원료의 다변화를 모색

③ 미국기업에 주목하는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

-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범용화학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첨단화학소재 기업들을 활발하게 인수하고 있음

④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과 스페셜티 포트폴리오 확대

- 에틸렌 등 범용 제품 공급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고강도·경량화 소재, 3D프린팅 소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스페셜티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⑤ 비석유화학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거나, M&A를 통해 레드, 그린, 화이트 바이오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석유화학기업은 합작 투자 등을 통해 석유기업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M&A를 통한 차별화 전략, 원료 다변화 전략, 사업전환 전략을 추진해야함. 또한 글로벌 M&A 시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PEF와의 컨소시엄도 고려해야함

통계로 본 석유화학산업 M&A 트렌드

글로벌 석유화학산업 M&A 동향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과 함께, 원유 산유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유가변동성 심화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세일혁명과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원료의 다변화, 글로벌 공급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과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 등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는 M&A를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사업구조 재편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M&A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 727건으로 정점을 보인 후, 2018년부터 석유화학산업 경기의 다운사이클(Downcycle) 우려와 함께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M&A 거래액은 1,878억 달러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거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업계의 판도를 좌우할 만한 메가 딜(Mega deal)이 성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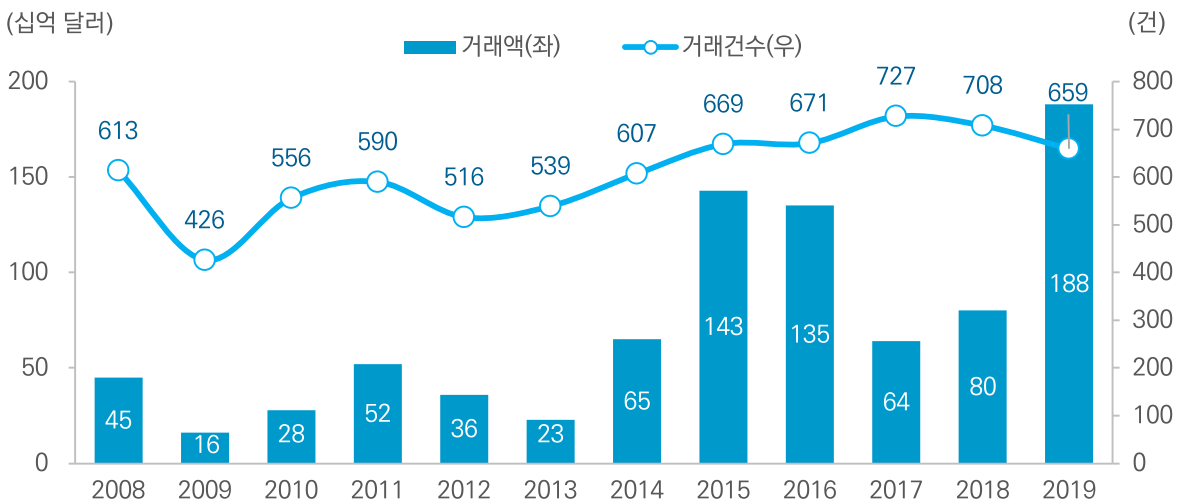
최근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석유화학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장기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증설보다는 기존 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사고 파는 M&A에 눈을 돌리고 있다. 또한 전기차의 급성장 등으로 인해 성장이 불투명해진 정유기업들이 석유화학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도 석유화학 관련 M&A 수요를 높이고 있다. 한편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공급 경쟁 심화에 따라 스페셜티(Specialty)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M&A 수요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산업은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직면...
2019년 석유화학산업 M&A 거래액은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



[전 세계 석유화학산업 M&A 거래건수 및 거래액]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Note 2: 석유화학산업 M&A란 석유화학 기업이 관여한 M&A를 의미. 세부적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매수자(Acquirer)이거나, 매각자(Seller) 또는 매각대상(Target)인 M&A 거래를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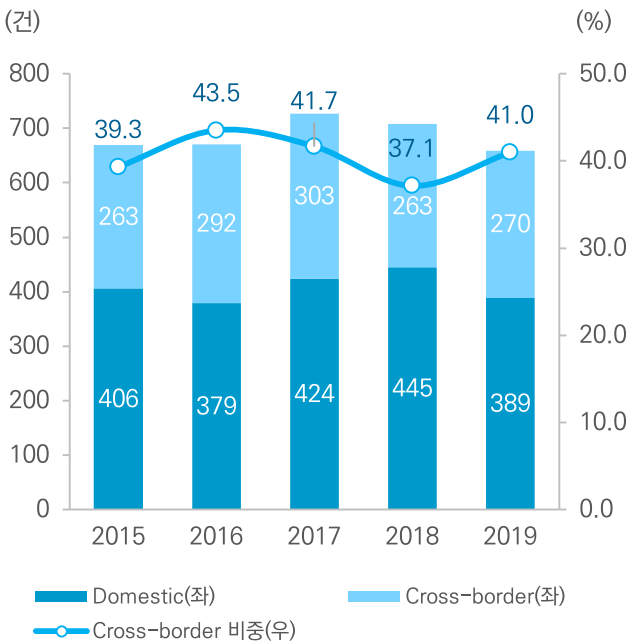
“
 대형 거래는 자국내
 거래에서 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Cross-
 border M&A는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
 ”

석유화학산업 Cross-border M&A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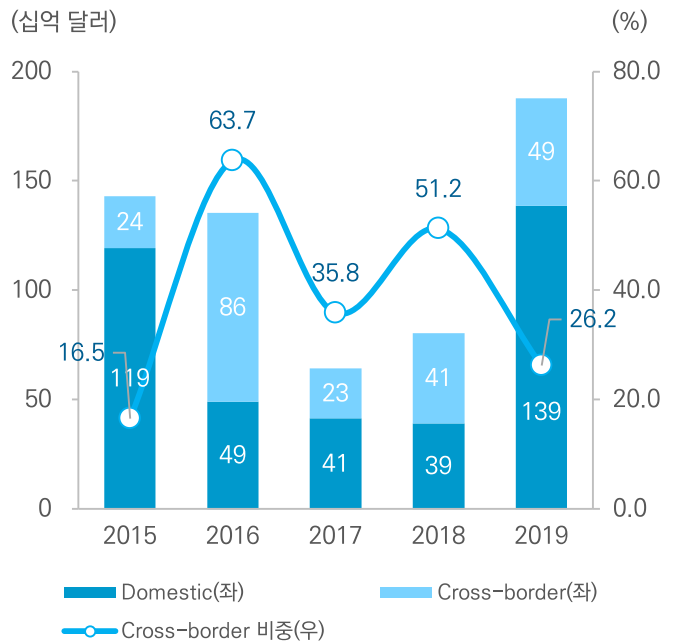
석유화학산업에서 Cross-border M&A 거래건수는 2019년 270건을 기록하여 전체 거래건수의 41%를 차지했다. 2016년 이후 석유화학산업에서 Cross-border M&A 거래건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Cross-border M&A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Cross-border M&A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이나, 사업재편, 시장의 지리적 확장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석유화학산업에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간 이동 제약과 기업실사 등의 어려움으로 당분간 Cross-border M&A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9년 거래액의 경우 자국 기업들 간 M&A가 1,385억 달러로 Cross-border M&A(492억 달러)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국 내 거래에서 주목할 만한 메가 딜이 다수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일례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 아람코(Saudi Aramco)가 자국의 석유화학기업 사빅(SABIC)을 691억 달러에 인수한 거래가 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석유화학 산업에서 일어난 M&A 중 거래규모가 가장 크다. 이외에도 일본의 석유화학 기업인 쇼와덴코(Showa Denko)가 히타치케미칼(Hitachi Chemical)을 91억 달러에 인수한 거래 등이 2019년 발생한 대표적인 자국 내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 Cross-border M&A 거래건수]



[석유화학산업 Cross-border M&A 거래액]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석유화학산업 업종 간 M&A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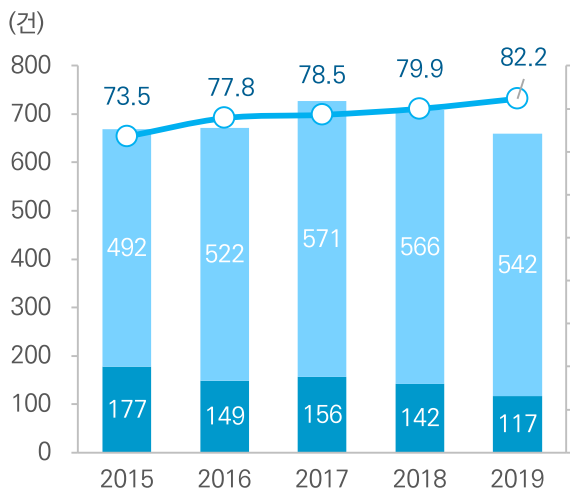
석유화학산업과 이종산업 간 M&A 거래건수는 2017년 571건에서 2019년 542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전체 거래건수 대비 비중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석유화학산업과 이종산업 간 거래액도 1,406억 달러로 전체 거래액의 74.8%에 달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동종업종 간 결합으로 덩치를 키워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M&A 수요보다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한 M&A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석유화학 기업 인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종산업 간 M&A 비중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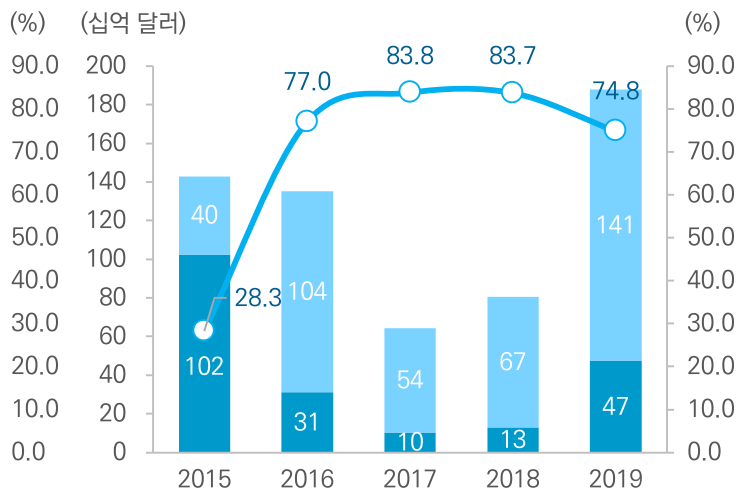
M&A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과 타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 지는 추세

”

[석유화학 동종 vs. 이종산업 M&A 거래건수]



[석유화학 동종 vs. 이종산업 M&A 거래액]



■ 동종산업(좌) ■ 이종산업(좌) ● 이종산업 간 M&A 비중(우) ■ 동종산업(좌) ■ 이종산업(좌) ● 이종산업 간 M&A 비중(우)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석유화학 기업이 인수한 피인수기업(Target)의 상위 10개 업종 살펴보면, 동종업종인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인수가 가장 많지만, 2015년 17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2015년 37건에 달한 기계·장비 업종에 대한 인수도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여 2019년 24건에 그쳤다. 반면 석유화학 기업이 유통·물류 기업을 인수한 거래는 2016년 10건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4건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유통·물류 기업들에 대한 인수는 자사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저유가와 제품수요 증가로 2016년부터 약 2년간 이어졌던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 국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화학 기업들은 석유화학 산업의 후방 산업인 자원·에너지 분야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분야 및 전기·전자 소재기업에 대한 인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석유화학 기업들은
유통·물류, 자원·에너지,
제약·바이오, 전기·전자
기업들을 적극 인수

”

[석유화학 기업이 인수한 업종 Top 10]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종명	건수	업종명	건수	업종명	건수	업종명	건수	업종명	건수
1	석유화학	177	석유화학	149	석유화학	156	석유화학	142	석유화학	117
2	기계·장비	37	자원·에너지	34	기계·장비	43	유통·물류	31	유통·물류	34
3	자원·에너지	25	기계·장비	33	자원·에너지	31	기계·장비	30	자원·에너지	25
4	제약·바이오	16	제약·바이오	20	제약·바이오	26	자원·에너지	24	기계·장비	24
5	유통·물류	14	전기·전자	16	건설·자재	25	전기·전자	23	제약·바이오	19
6	식품·음료	13	기타화학	14	유통·물류	15	건설·자재	21	전기·전자	17
7	전기·전자	13	건설·자재	13	헬스케어	13	기타화학	19	건설·자재	15
8	부동산	10	부동산	12	전기·전자	12	의류·섬유	13	식품·음료	14
9	건설·자재	7	식품·음료	11	식품·음료	11	정보·통신	11	부동산	13
10	정보통신	7	유통·물류	10	농업·바이오	11	농업·바이오	10	헬스케어	11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Note 2: 석유화학의 범위는 기초유분과 중간원료 및 석유화학 관련 1차 가공제품을 포함하며, 기타화학은 농화학 및 산업용 가스 등이 포함

“ 2017년 이후 전체 거래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원·에너지 기업의 석유화학기업 인수는 증가 추세 ”

2019년 석유화학 기업을 인수한 매수자(Acquirer) 업종의 경우 동종인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등 투자회사가 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감소와 공급과잉 등 다운사이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재무적 투자자들은 석유화학 분야를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성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투자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2017년 이후 석유화학 관련 M&A 거래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원·에너지 기업들의 석유화학기업 인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의 성장과 대체에너지의 부상, 환율 및 유가변동 등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된 석유기업들이 정유사업 외에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사업으로의 진출을 잇따라 모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기업을 인수한 업종 Top 10]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종명	건수	업종명	건수	업종명	건수	업종명	건수	업종명	건수
1	석유화학	177	석유화학	149	석유화학	156	석유화학	142	석유화학	117
2	투자회사	40	투자회사	38	투자회사	48	투자회사	47	투자회사	45
3	자원·에너지	18	자원·에너지	29	유통·물류	22	자원·에너지	20	기계·장비	25
4	유통·물류	16	유통·물류	20	기계·장비	21	기계·장비	19	자원·에너지	23
5	기계·장비	13	기계·장비	19	자원·에너지	16	유통·물류	12	유통·물류	12
6	지주회사	13	건설·자재	11	건설·자재	16	금융	12	금융	10
7	건설·자재	12	금융	8	제약·바이오	10	건설·자재	10	건설·자재	10
8	기타화학	11	지주회사	6	기타화학	10	제약·바이오	10	제약·바이오	10
9	제약·바이오	9	금속·철강	6	지주회사	9	전기·전자	8	전기·전자	5
10	농업·바이오	8	제약·바이오	5	전기·전자	8	기타화학	7	기타화학	5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Note 2: 투자회사는 Bloomberg 업종분류상 Investment Company, Private Equity를 의미

주요국 석유화학산업 M&A 동향

2019년 석유화학산업 M&A 중 미국 기업이 관여한 거래건수가 23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141건), 독일(68건), 일본(68건)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석유화학 강국인 한국(35건)의 경우 전 세계 여섯 번째로 석유화학 관련 M&A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과 함께 중국, 한국,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2019년 자국 기업들 간 M&A가 Cross-border M&A보다 많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자국 내 거래 비중이 83.7%로 타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Cross-border 비중이 자국 기업들 간 거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아시아권 국가이지만 자국 내 거래보다 Cross-border M&A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유화학산업에서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은 자국내 M&A 비중이 높지만 일본의 경우 Cross-border M&A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국가별 석유화학산업 M&A 거래건수(연도별 상위 10개국)]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거래건수			국가	거래건수			국가	거래건수			국가	거래건수			국가	거래건수		
		자국 내	국경 간	전체		자국 내	국경 간	전체		자국 내	국경 간	전체		자국 내	국경 간	전체		자국 내	국경 간	전체
1	미국	133	112	245	미국	113	138	251	미국	129	116	245	미국	136	113	249	미국	120	112	232
2	중국	88	19	107	중국	90	37	127	중국	118	30	148	중국	146	17	163	중국	118	23	141
3	일본	40	29	69	일본	42	45	87	일본	35	35	70	독일	11	48	59	독일	6	62	68
4	독일	8	57	65	독일	5	60	65	독일	8	58	66	일본	31	23	54	일본	33	35	68
5	한국	41	9	50	인도	26	13	39	영국	8	46	54	인도	27	24	51	영국	5	35	40
6	영국	8	40	48	영국	8	30	38	한국	36	9	45	영국	12	37	49	한국	25	10	35
7	인도	18	17	35	한국	25	8	33	프랑스	7	27	34	네덜란드	3	26	29	인도	20	13	33
8	프랑스	6	18	24	프랑스	6	26	32	인도	19	14	33	캐나다	8	19	27	캐나다	11	20	31
9	캐나다	5	19	24	캐나다	6	21	27	네덜란드	6	24	30	한국	17	7	24	프랑스	6	22	28
10	말레이시아	13	8	21	네덜란드	2	20	22	이탈리아	3	26	29	프랑스	1	21	22	네덜란드	3	20	23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2019년 석유화학산업 M&A 거래액 기준 상위 10개 국가 중 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중국이며, 미국 기업이 관여한 거래액이 725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이후 거래건수 대비 거래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사빅(SABIC)의 사다프(SADAF) 인수(2017년),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의 아란세오(ARLANXEO) 인수(2018년), 사우디 아람코의 사빅(SABIC) 인수(2019년)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육성전략에 따라 최근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 딜이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대형 M&A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됨



[국가별 석유화학산업 M&A 거래액(연도별 상위 10개국)]

(백만 달러)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명	거래액	국가명	거래액	국가명	거래액	국가명	거래액	국가명	거래액
1	미국	102,587	중국	68,720	미국	25,922	미국	28,257	미국	72,517
2	중국	19,769	미국	43,660	중국	15,082	중국	22,139	사우디아라비아	69,094
3	벨기에	7,256	독일	18,314	독일	11,211	네덜란드	14,432	일본	23,531
4	이탈리아	7,124	스위스	6,639	영국	3,763	싱가포르	12,604	독일	20,448
5	한국	5,687	영국	2,534	사우디아라비아	2,978	독일	7,864	중국	11,885
6	네덜란드	3,966	일본	2,473	일본	2,785	인도	4,536	프랑스	9,704
7	일본	3,841	캐나다	1,844	프랑스	2,604	한국	3,559	영국	5,700
8	영국	3,822	멕시코	1,443	캐나다	2,327	사우디아라비아	3,468	한국	3,760
9	쿠웨이트	3,200	브라질	1,329	멕시코	1,952	일본	2,742	호주	3,718
10	독일	1,589	프랑스	1,207	덴마크	1,628	프랑스	1,623	스위스	2,595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석유화학산업 M&A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

한편 국가별 석유화학산업 Cross-border M&A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미국이 매년 가장 많은 거래를 진행했고, 독일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 2017년 전체적인 Cross-border M&A 거래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한 거래, 즉 미국의 Inbound M&A 거래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었으며, 2019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2019년까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후술할 M&A 사례에서 살펴볼겠지만,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도 2017년 이후 미국 석유화학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스페셜티(Specialty) 기업들에 대한 인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가별 석유화학산업 Cross-border M&A 거래건수(연도별 상위 10개국)]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국경간 거래건수			국가	국경간 거래건수			국가	국경간 거래건수			국가	국경간 거래건수						
		Out	In	전체		Out	In	전체		Out	In	전체		Out	In	전체				
1	미국	60	52	112	미국	68	70	138	미국	60	56	116	미국	57	56	113	미국	49	63	112
2	독일	35	22	57	독일	34	26	60	독일	36	22	58	독일	22	26	48	독일	37	25	62
3	영국	18	22	40	일본	37	8	45	영국	18	28	46	영국	20	17	37	영국	23	12	35
4	일본	27	2	29	중국	19	18	37	일본	34	1	35	네덜란드	11	15	26	일본	34	1	35
5	중국	10	9	19	영국	11	19	30	중국	15	15	30	인도	12	12	24	중국	12	11	23
6	프랑스	12	7	19	프랑스	13	13	26	프랑스	17	10	27	일본	18	5	23	프랑스	8	14	22
7	스위스	14	5	19	캐나다	10	11	21	이탈리아	9	17	26	프랑스	12	9	21	스위스	13	8	21
8	캐나다	4	14	18	네덜란드	8	12	20	네덜란드	9	15	24	캐나다	9	10	19	네덜란드	15	5	20
9	인도	6	11	17	이탈리아	15	2	17	캐나다	11	13	24	중국	8	9	17	캐나다	8	12	20
10	네덜란드	8	8	16	스위스	7	10	17	스위스	14	7	21	이탈리아	9	8	17	벨기에	9	5	14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Note 2: Outbound는 자국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 Inbound는 해외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한 거래를 의미

이외에도 글로벌 Cross-border M&A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 일본기업들이 해외기업을 인수한 Outbound 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 일본 기업들이 관여한 Cross-border M&A 35건 중 무려 34건이 Outbound 거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본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딜 소싱(Deal sourcing)을 통해 성장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2016년 37건, 2017년 30건에 달한 중국의 석유화학 Cross-border M&A 거래건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8년 크게 감소했으며, 2019년 들어 다소 회복했으나, 중국 석유화학 M&A 전체 거래건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일본기업들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적극적인
Outbound M&A
전략을 추진 중

”



사례로 본 석유화학산업 M&A 트렌드

“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M&A를 통해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중

”

석유화학 사업을 확대하는 석유기업들

일반적으로 석유기업은 석유화학기업과 다르게 분류된다. 석유기업의 사업영역은 석유탐사 및 생산 (Upstream), 보관 및 수송(Midstream), 정유 및 석유제품 도소매 판매가 중심이다. 과거 석유기업들의 석유화학 참여는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석유 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하거나, M&A를 통해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 기업 인수에 최근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다. 사우디 아람코는 2019년 12월 IPO(기업공개) 직후 시가총액 1조 8,800억 달러를 기록해 이전까지 글로벌 시가총액 1위였던 미국의 애플(당시 1조 2,000억 달러)을 가볍게 제쳤다. 2018년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는 독일 화학기업 랑세스(LANXESS)와 합작 설립한 합성고무 생산업체 아란세오(ARLANXEO)의 랑세스 보유지분 전량을 16억 달러에 매입했다. 또한 2019년에는 자국의 석유화학기업 사빅(SABIC)을 691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는 2015년 다우케미칼(Dow Chemical)과 듀폰(DuPont)의 합병 규모인 656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석유화학산업 M&A 중 거래규모가 가장 크다. 사우디 아람코 외에도 엑슨모빌(ExxonMobil)은 방향족 화합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2017년 싱가포르의 석유화학공장 주롱아로마틱스(Jurong Aromatics)를 인수했으며,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시노펙(Sinopec)도 2017년 올레핀계 석유화학제품 생산 기업인 상하이세코(Shanghai Secco Petrochemical)를 15억 달러에 영국의 BP로부터 인수했다.

[2015~2019년 석유기업이 석유화학기업을 인수한 주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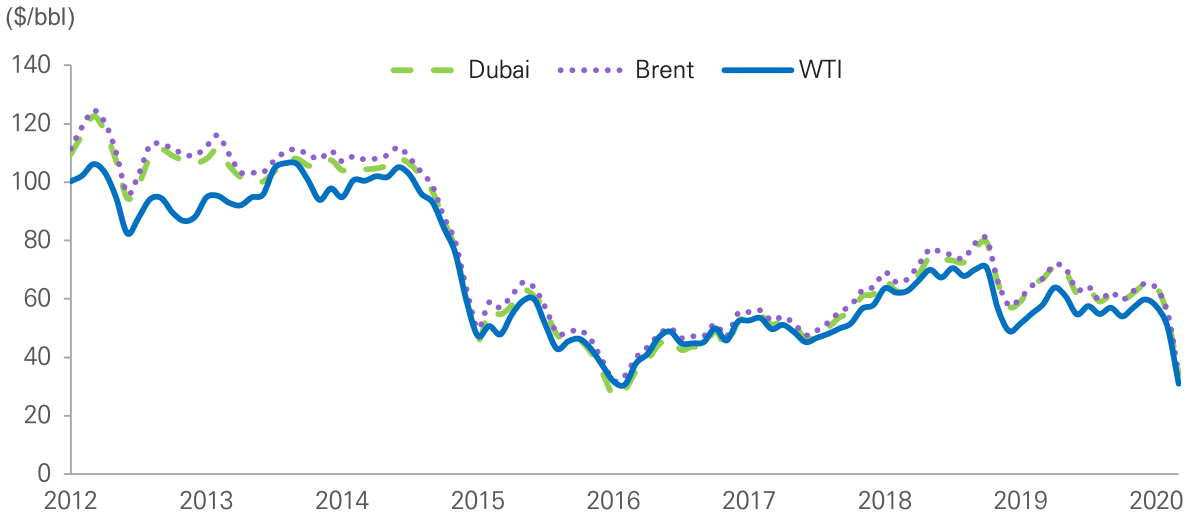
시기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액 (백만 달러)	피인수사업분야
	기업명	국가	기업명	국가		
2019	Saudi Aramco	사우디아라비아	SABIC	사우디아라비아	69,094	종합석유화학
2018	Saudi Aramco	사우디아라비아	ARLANXEO	독일	1,623	합성고무
2017	Sinopec	중국	Shanghai Secco Petrochemical	중국	1,470	올레핀계 석유화학제품
2017	Exxon Mobil	미국	Jurong Aromatics의 Refining & Petrochemical Plant	싱가포르	비공개	정제 및 파라자일렌 등 석유화학
2015	Rosneft Oil	러시아	Novokuibyshevsk Petrochemical	러시아	300	석유화학제품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석유기업들이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석유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유가는 2014년 마지막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좀처럼 다시 고유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 추이]



Source: Petronet,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특히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합의 갈등에 따른 공급 충격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위축은 국가유가를 더욱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다양한 대체 자원들이 개발되면서, 전통적인 석유산업의 장기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석유기업의 주력 사업인 E&P(Exploration & Production)사업과 정유사업은 유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반면, 석유화학의 경우 저유가는 중장기적으로 원가 하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 분야 중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석유 수요 피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40년까지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석유화학 분야가 석유 수요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았다.

“ 석유기업의 주력 사업인 원유생산과 정유는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

[부문별 석유수요 장기전망]

(백만 b/d)

구분	2017년	2040년	증감	
수송	자동차	38.6	42.9	4.3
	항공	7.1	10.4	3.4
	선박	4.5	5.9	1.4
✓ 석유화학	11.6	16.6	5.0	
산업	5.8	7.5	1.7	
발전	4.8	2.6	-2.2	
건물	7.8	6.7	-1.1	
기타	16.4	18.4	2.0	
합계	96.6	111	14.4	

Sourc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국내 정유사들도
석유화학사업 확대를
추진 중

”

이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M&A를 통해 기존 석유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석유화학분야의 수직계열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성 악화의 위험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M&A를 통한 방법은 아니지만, 석유화학사업 강화의 움직임은 국내 정유기업들에게도 포착되고 있다. GS칼텍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2조 7,000억 원을 투자해 여수에 에틸렌 및 폴리에틸렌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2019년 자회사인 현대케미칼과 현대코스모를 통해 아로마틱 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총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S-Oil의 경우 2023년까지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해 연간 15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스팀 크래커를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회사들도 유가급락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 등 외부 리크스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종합석유화학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의 셰일가스 및 ECC설비 투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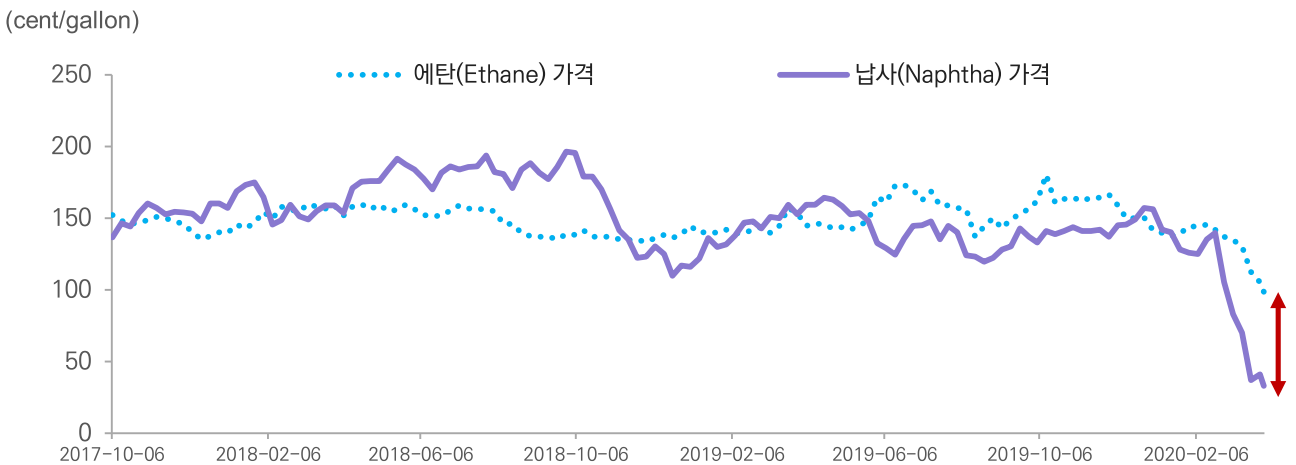
최근 석유화학기업들의 M&A 사례의 특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화학원료의 다변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의 셰일유전이나, 셰일업체에 대한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석유화학기업인 이네오스(INEOS)는 2017년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Engie)로부터 영국의 셰일가스 지분을 인수했으며, 국내기업인 SK이노베이션도 인수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자회사인 SK E&P America를 통해 미국 셰일 개발업체 롱펠로(Longfellow)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5년 바스프(BASF)는 아르헨티나의 아구아다(Aguada) 셰일유전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셰일유전이나 셰일업체에 대한 인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에틸렌(Ethylene) 생산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꼽힌다. 국제유가가 2017년부터 60달러를 상회하면서 셰일가스와 같이 천연가스에서 에탄(Ethane)을 추출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ECC(Ethane Cracking Center) 방식이 원유를 증류해 얻은 납사(Naphtha)에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 방식보다 더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유가가 상당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에탄이 납사 대비 원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셰일가스와 ECC 신증설에 적극 투자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에탄 우위의 가격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0년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합의 갈등으로 원유의 공급과잉이 심화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석유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유가가 20달러 수준(3월 30일 기준)으로 급락했다. 2020년 6월 유가가 40달러 선으로 다소 회복 되었으나, 여전히 셰일가스와 ECC 설비 마진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의 ECC
 투자가 확대 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ECC
 마진의 불확실성 증가
 ”

[에탄 및 납사의 가격 변동 추이]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미국 Gulf Coast 기준

“

ECC 투자의 지속여부는
향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와 유가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

”

기술발전으로 셰일가스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저유가 상황에서는 셰일가스에서 추출한 ECC가 NCC 대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2020년 예정되었던 미국 ECC 설비 증설도 코로나19 확산과 최근의 유가급락으로 대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원유 산유국 간 갈등 양상이 유가급락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원유 산유국들의 미국 셰일산업에 대한 견제를 유가급락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 초저유가로 인해 생산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미국 셰일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2010년 이후 경제 부흥을 이끌어온 셰일산업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미국 셰일산업의 생존 향방에 따라 향후 상당 기간 초저유가가 지속될 수도 있다. 또한 산유국 간의 갈등이 종결되더라도 현재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가의 일정 수준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즉, 석유화학 기업들의 셰일가스 및 ECC 투자 트렌드의 지속여부는 향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와 유가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기업에 주목하는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

M&A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석유화학산업 M&A의 전반적인 거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인수는 증가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먼저 셰일혁명으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크게 낮아진 것을 꼽을 수 있고, 다음으로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미국 경제의 호황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 거대 화학기업들의 합병과 사업재편 과정에서 독점 규제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매물들이 다수 시장에 등장한 것도 미국 기업에 대한 M&A를 활성화시킨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점점 높아지는 미국의 관세장벽도 M&A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대 지속된 미국의 셰일 붐은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들의 눈을 미국으로 돌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들은 앞다투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직접 미국에 화학 공장을 신증설하여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최대 수요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했다. 미국 화학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총 333개의 화학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추진되었으며, 투자금액만 2,0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운데 68%가 해외 기업들이 직접 투자했거나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출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소재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들은 미국의 범용 화학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기업이나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들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17년 SK종합화학은 미국 종합화학기업 듀폰(DuPont)의 에틸렌 아크릴산(Ethylene Acrylic Acid, EAA) 사업부문을 3억 7,0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같은 해 폴리염화비닐리덴(Poly Vinylidene Chloride) 사업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SK종합화학은 고부가 포장재 소재시장에서 메이저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G화학은 2018년 미국의 자동차 접착제 전문 업체인 유니실(Uniseal)을 1억 3,406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또한 같은 해 KCC는 원익QnC, SJ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를 31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2019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대림산업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석유화학기업 크레이튼(Kraton)의 카리플렉스(Cariflex, 합성수지고무) 사업부를 인수했고, LG화학은 듀폰으로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솔루블 유기발광다이오드(Soluble OLED)’의 재료기술을 1억 7,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M&A는 아니지만, 롯데케미칼도 2019년 31억 달러가 투입된 미국 에탄크래커(ECC) 공장을 완공하는 등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미국 시장 및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들은 미국에서 범용화학 분야의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고부가 소재 기업들을 활발하게 인수 중

”

[2015~2019년 석유화학(범용 및 스페셜티) 관련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주요 사례]

시기	인수기업(한국)	피인수기업(미국)	거래액(백만 달러)	피인수사업분야
2019	대림산업	크레이튼(Kraton)	530	카리플렉스(합성수지고무)
2019	LG화학	듀폰(DuPont)의 Soluble OLED 기술	175	Soluble OLED
2018	KCC, 원익QnC, SJL파트너스	MPM(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3,100	실리콘
2018	LG화학	유니실(Uniseal)	134	접착제
2017	SK종합화학	듀폰(DuPont)의 EAA 사업부문	370	에틸렌아크릴산
2017	SK종합화학	듀폰(DuPont)의 PVDC 사업부문	75	폴리염화비닐리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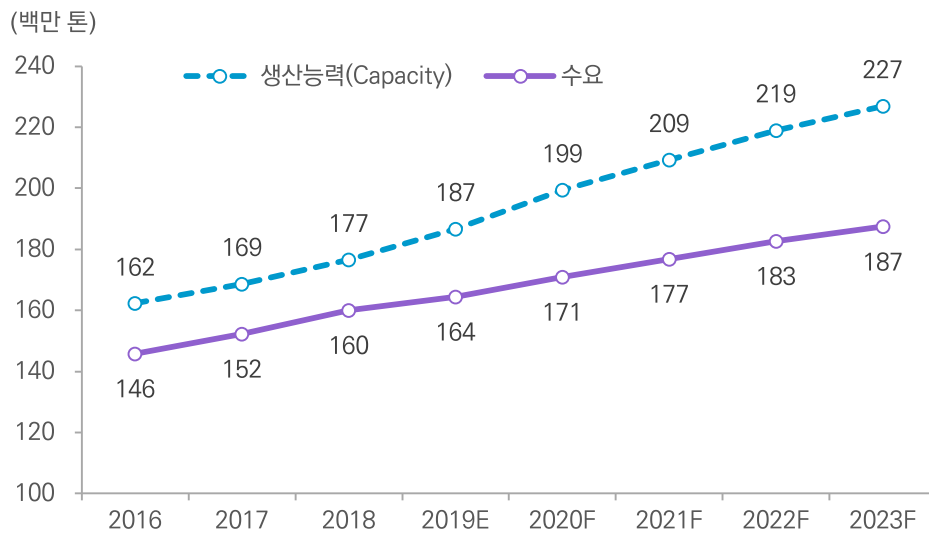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과 스페셜티 포트폴리오 확대

아람코, 사빅을 비롯한 중동 기업들의 석유화학 사업확대,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 미국의 대규모 에틸렌 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해 글로벌 범용 석유화학 분야는 향후 수년간 공급과잉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에틸렌 수요는 2019년 1억 6,447만 톤에서 2023년 1억 8,740만 톤으로 연평균 3.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동 기간 생산능력(Capacity)은 1억 8,670만톤에서 2023년 2억 2,694톤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공급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설비의 가동률 하락과 채산성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에틸렌 수급 동향 및 전망]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에틸렌 신증설 증가분 4,024만 톤 중 미국과 중국에서의 증가분이 1,967만 톤으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신증설 계획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나, 에틸렌의 공급과잉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레핀 계열인 에틸렌, 프로필렌뿐만 아니라 방향족 제품인 파라자일렌(PX)도 중국 내 대규모 증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범용 제품 전반에서 공급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범용석유화학 업황이 다운사이클에 접어든 만큼,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생산제품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발빠르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첨단 소재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포트폴리오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틸렌 등 범용 제품
공급증가율이 수요증가율
을 크게 상회하면서 공급
과잉이 점차 심화



[미국과 중국의 주요 에틸렌 설비 신증설 계획]

(천톤)

지역	기업명	CAPA	가동시기(예정)
미국	Total/Borealis/NOVA	1,000	2020
	Shell	1,500	2021
	SABIC/ExxonMobil	1,800	2022
	Formosa	1,200	2022
	PPTGC/대림산업	1,000	N/A
중국	Zhejiang PC	1,400	2020
	Hengli PC	1,500	2020
	Sinopec Zhanjiang	800	2020
	Liaoning Bora PC	1,000	2020
	Wanhua Chemical	1,000	2020
	Sinochem Quanzhou	1,000	2020
	Satellite PC	1,250	2021
	Petrochina Lanzhou	8,00	2021
	Petrochina Tarim	6,00	2021
	Huatai Shengfu	6,00	2021

Source: ICIS,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업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석유화학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고강도·경량화 소재 기업들을 인수 하면서 스페셜티 시장 진입을 적극 모색 ”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에서 고부가가치제품으로 꼽히는 전자소재,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정밀화학제품 등은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정 선도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어 기업의 내부적인 성장으로는 단시간 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스페셜티 시장 진입을 위해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최근 스페셜티 인수사례를 보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고강도·경량화 소재, 3D프린팅 소재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석유화학 기업인 쇼와덴코(Showa Denko)는 2019년 반도체 및 LCD용 재료 생산에 강점이 있는 히타치케미칼(Hitachi Chemical)을 91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독일의 바스프(BASF)도 2017년 차세대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롤릭(Rolic)을 인수했다. 또한 미쓰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은 2016년 이후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강도·경량화 소재 기업들을 다수 인수하고 있으며, 사빅도 2019년 미국 탄소나노튜브 업체를 인수하는 등 경량화 복합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스프와 미쓰비시케미칼은 미래 제조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3D프린팅 소재 업체에 대한 인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주요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스페셜티 분야 인수 사례]

시기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액 (백만 달러)	피인수사업분야
	기업명	국가	기업명	국가		
2019	Showa Denko	일본	Hitachi Chemical	일본	9,050	반도체 및 LCD용 재료
2019	SABIC	사우디아라비아	Black Diamond Structures	미국	비공개	탄소나노튜브
2019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일본	AdvanSource Biomaterials	미국	9	열가소성 폴리 우레탄 엘라스토머(TPU)
2018	BASF	독일	Advanc3D Materials	독일	비공개	3D프린팅 소재
2018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일본	Dutch Filaments	네덜란드	비공개	3D 프린팅 필라멘트
2017	롯데케미칼	한국	Arbe Styrimdo PT, ABS Industri Indonesia PT	인도네시아	31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2017	Kuraray	일본	Calgon Carbon	미국	1,329	탄소재료
2017	BASF	독일	Solvay의 Polyamides business	프랑스	1,557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017	BASF	독일	Innofil3D	네덜란드	비공개	3D 프린팅 필라멘트
2017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일본	Gemini Composites	미국	비공개	자동차용 탄소섬유
2017	BASF	독일	Rolic	스위스	비공개	디스플레이 및 광학제품용 소재
2016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일본	Nippon Synthetic Chemical	일본	422	정밀화학물질
2016	BASF	독일	Chemetall	미국	3,200	코팅, 표면처리
2016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일본	Piper Plastics	미국	비공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016	SABIC	사우디아라비아	Fibre Reinforced Thermoplastics	네덜란드	비공개	섬유 강화 단방향성 테이프
2015	BASF	독일	Seashell's nanowire technology	미국	비공개	은나노와이어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Note 2: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스페셜티 인수사례 중 "미국기업에 주목하는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에서 언급한 사례는 본 표에서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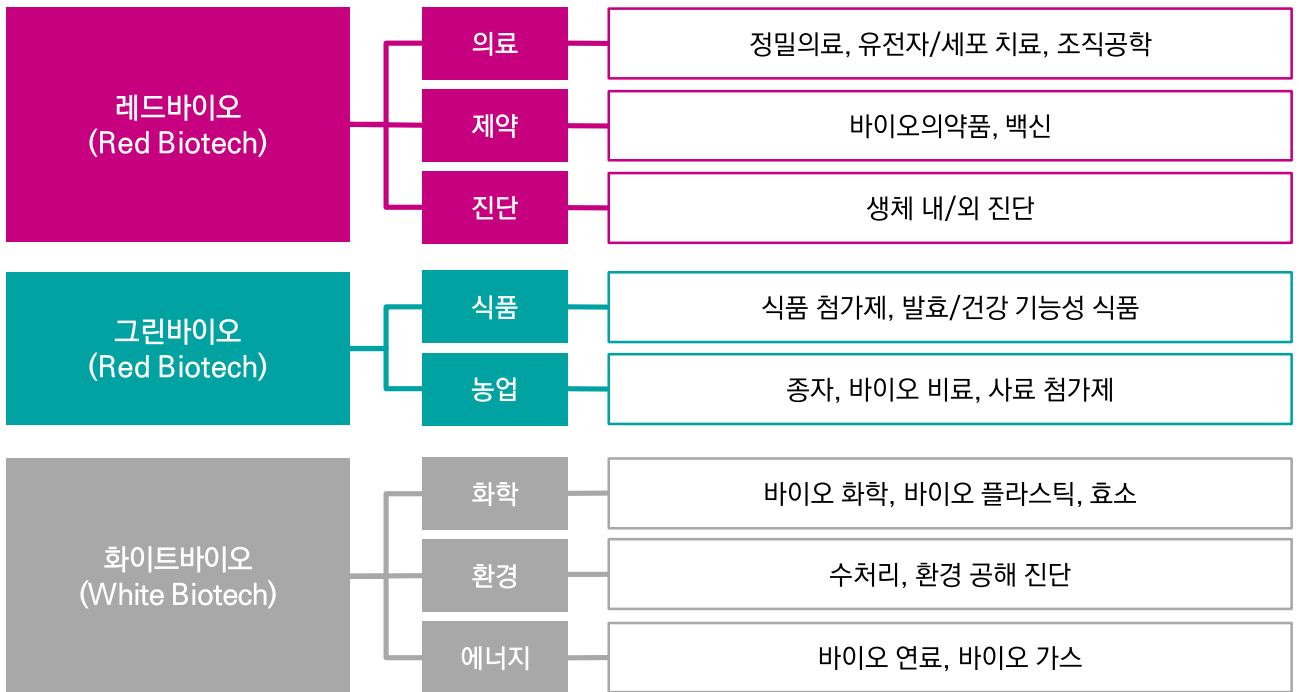
“ 석유화학 기업들은 배터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거나 바이오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비석유화학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석유화학 기업들은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 분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 비석유화학 분야로의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배터리 중심으로 사업체제를 전환하거나, 제약, 농업, 환경 등에 적용할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의 발전과 미래 시장 잠재력에 따라 바이오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이 M&A를 활용해 적극적인 사업전환을 모색하는 업종은 바이오 분야이다. 바이오 산업은 일반적으로 의료·제약·진단 관련 사업인 레드바이오(Red Biotech), 식품·농업 관련 사업인 그린바이오(Green Biotech), 그리고 환경, 대체화학, 대체에너지 사업인 화이트바이오(White Biotech)로 구분된다.

[바이오 산업 구분]



Source: 업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레드바이오의 경우 일본 석유화학 기업들의 M&A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본의 종합화학회사인 아사리카세이(Asahi Kasei)는 2019년 신장이식 환자 면역반응 억제제인 '엔바서스XR(Envarsus XR)'을 개발한 벨록시스 파마슈티컬스(Veloxis Pharmaceuticals)를 9억 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미쓰비시케미칼의 경우 2019년 미쓰비시타나베파마(Mitsubishi Tanabe Pharma)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45억 2,700만 달러 규모의 주식공개매입을 진행했다. 미쓰비시케미칼은 미쓰비시타나베파마를 통해 신약개발은 물론 건강관리와 예방의료 및 재생의료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히타치케미칼은 2017년 세포 치료제 개발회사인 피씨티셀테라피서비스(PCT Cell Therapy Services)를 7,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LG화학도 2016년 LG생명과학을 인수하여 레드바이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바 있다.

“ 일본 화학기업들은 레드바이오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 ”

[2015~2019년 주요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레드바이오 분야 인수 사례]

시기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액 (백만 달러)	피인수사업분야
	기업명	국가	기업명	국가		
2019	Asahi Kasei	일본	Veloxis Pharmaceuticals	덴마크	950	제약·바이오
2019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일본	Mitsubishi Tanabe Pharma	일본	4,527	제약·바이오
2017	Hitachi Chemical Holdings	일본	PCT Cell Therapy Services	미국	75	재생 의료용 세포
2016	LG화학	한국	LG생명과학	한국	1,304	제약·바이오
2016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일본	Genix-Industria Farmaceutica Ltda	브라질	비공개	처방약, 의약품 도매 유통
2015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일본	Clio	일본	비공개	의료, 줄기세포 연구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그린바이오 시장은 글로벌 거대 종합화학기업들이 시장을 조기 장악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메가 딜을 연이어 성사시키고 있다. 아스피린으로 인해 지금은 제약 기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이기도 한 독일의 바이엘(Bayer)은 2016년 미국의 종자기업 몬산토(Monsanto)를 657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몬산토 인수에 따른 독과점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온 바이엘의 종자 및 작물보호제 사업을 바스프(BASF)가 발빠르게 인수했다.

“ 그린바이오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화학 기업들의 메가 딜로 이미 과점화가 진행 중 ”

또한 2015년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합병으로 탄생한 다우듀폰은 2017년 FMC의 건강·영양 사업부를 인수했고, 2018년에는 바스프의 카놀라 생산시스템을 인수했다. 미국과 독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석유화학 기업들도 M&A를 통해 그린바이오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2015~2019년 주요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그린바이오 분야 인수 사례]

시기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액 (백만 달러)	피인수사업분야
	기업명	국가	기업명	국가		
2019	Sumitomo Chemical	일본	Nufarm Industria Quimica e Farmaceutica	브라질	802	종자 및 작물보호제
2019	BASF	독일	Isobionics	네덜란드	비공개	천연향료
2019	DuPont	미국	BASF의 Clearfield canola production system	독일	비공개	카놀라 생산 시스템
2018	Sumitomo Chemical	일본	Excel Crop Care	인도	비공개	작물보호제
2018	BASF	독일	Bayer의 Crop Science businesses	독일	2,061	농업생명과학
2018	China National Chemical Corporation	중국	Abbott & Cobb	미국	비공개	종자
2018	BASF	독일	Bayer의 Vegetable seeds business	독일	1,847	종자
2017	DuPont	미국	FMC의 Health & Nutrition segment	브라질	비공개	건강·영양
2017	BASF	독일	Bayer의 Cottonseed business, Canola seed operations, LibertyLink gene	독일	6,978	종자 및 비선택성 제초제
2016	China National Chemical Corporation	중국	Adama Agricultural Solutions	이스라엘	1,400	작물보호제
2016	Bayer	독일	Monsanto	미국	65,696	종자 및 농업생명과학
2016	China National Chemical Corporation	중국	Syngenta	스위스	45,542	작물보호제
2016	LG화학	한국	팜한농	한국	351	복합비료, 작물보호제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인 캄차이나(China National Chemical Corporation)는 2016년 오리지널(Original) 농약 원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스위스의 신젠타(Syngenta)를 455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같은 해 제네릭(Generic) 농약 원제 1위 기업인 아다마(Adama Agricultural Solutions)를 14억 달러에 인수했다. M&A를 통해 캄차이나는 작물보호제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1위 기업을 모두 보유하게 된 거대 농화학 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캄차이나는 2018년 미국의 종자기업인 애보트&콕(Abbott & Cobb)을 인수하여 작물보호제를 넘어 종자 사업까지 뛰어 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스미토모케미칼이 2019년 뉴팜(Nufarm)이 운영 중인 브라질의 종자 및 작물보호제 사업을 8억 달러에 인수하여 세계 최대의 작물보호제 시장인 남미에 진출했으며, 이에 앞서 2018년에는 엑셀크롭케어(Excel Crop Care)를 인수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작물보호제 시장에 진출했다. 한편 2016년 LG생명과학을 인수해 레드바이오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LG화학은 같은 해 복합비료 및 작물보호제 기업인 팜한농을 인수하여 그린바이오 시장에도 함께 진출했다.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와 같은 화이트바이오의 경우 석유화학 업계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 일부 개발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화이트바이오 중 수처리(water treatment) 분야는 최근 들어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의 인수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듀폰의 M&A 행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5년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합병으로 탄생한 다우듀폰은 2019년 소재과학 부문을 다우, 농업 부문을 코르테바(Corteva), 특수화학 부문을 듀폰으로 분사했다. 듀폰은 독립법인으로 분사된 직후 수처리 관련 기업인 독일의 잉에(inge), 미국의 멤코(Memcor), 이스라엘의 데살리테크(Desalitech), 아일랜드의 옥시엠(Oxymem)을 연이어 인수했다. 듀폰은 해당 M&A가 최고의 수자원 공급 업체가 되기 위한 듀폰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브라질 최대의 석유화학업체이자, 사탕수수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브라스캠(Braskem)도 자국의 수처리 업체 세트렐(Cetrel)을 1억 9,300만 달러에 인수했다.

“

화이트바이오의 경우 아직까지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없으며, 수처리 분야에서 M&A가 주로 진행

”

[2015~2019년 주요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화이트바이오 분야 인수 사례]

시기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액 (백만 달러)	피인수사업분야
	기업명	국가	기업명	국가		
2019	DuPont	미국	Oxymem	아일랜드	비공개	수처리
2019	DuPont	미국	Desalitech	이스라엘	비공개	수처리
2019	DuPont	미국	Memcor	미국	110	수처리
2019	DuPont	미국	inge	독일	비공개	수처리
2017	Braskem	브라질	Cetrel	브라질	193	수처리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Pending)이거나 완료된(Completed) 거래 기준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M&A 전략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유가변동성 심화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석유화학기업이 합작 투자 등을 통해 석유기업과의 공존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M&A를 통한 차별화 전략, 원료 다변화 전략, 사업전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M&A 시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PEF와의 컨소시엄도 고려하여 최대한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M&A 전략]

1



공동 투자 및 M&A를 통한 차별화

- 석유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존 방안 모색
- 신증설·합작법인 등 공동투자
- M&A를 통한 고부가 제품 차별화 포트폴리오 확대

2



M&A를 통한 원료다변화

- ‘석유화학’ → ‘가스화학’ 시대 대비
- 원료 다변화를 위한 ECC 투자 검토 필요
- 저평가된 세일 업체나 ECC 자산 인수 기회 모색

3



컨소시엄을 통한 글로벌 M&A 도전

- 코로나19로 글로벌 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 가속화
- 글로벌 화학기업의 우량 사업부 인수 기회 발굴
- 재무적 투자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리스크 헤지

4



M&A를 통한 사업전환 모색과 미래 산업 준비

- 종합석유화학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 모색
- 배터리·바이오 확장 위한 M&A 적극 활용
- M&A를 통한 미래 산업 준비는 생존전략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1 공동 투자 등을 통한 협력과 M&A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함께 수립하라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과 정유기업들(이하 석유기업)의 석유화학사업 확대,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 원가 우위를 앞세운 중동의 석유화학 육성 정책,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ECC 신증설 등은 석유화학 업계가 치열한 공급경쟁의 시기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절벽에 대한 우려로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석유화학 업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위기와는 별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석유화학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교적 분명했고, 한치 앞을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 오히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먼저 석유 기업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자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이후에는 타 업계에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석유업계의 석유화학 진출은 그 상황이 다르다. 자본력과 안정적인 원료 확보 측면에서 석유화학업계가 석유업계보다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석유기업은 석유화학분야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석유화학분야 외에 타 석유부문의 수요 피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기업들이 연계성이 높은 석유화학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석유기업들이 진출하는 석유화학분야는 범용제품 중심이다. 범용제품은 차별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석유기업의 범용제품 진출이 불가피하다면 석유화학기업들은 석유기업들과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석유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이 신증설에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합작법인(Joint Venture)에 공동 투자하여 사업범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석유기업과 석유화학기업들 모두 공동으로 투자할 유인이 존재한다. 석유화학기업은 석유기업과 합작함으로써 원재료를 안정적이고 저가에 조달할 수 있으며, 석유기업은 시설 투자 자금을 줄일 수 있고, 석유화학기업이 기 구축한 판매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석유화학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으로의 차별화와 포트폴리오 확대를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M&A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M&A를 포트폴리오 확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방산업에서 화학소재의 고도화 요구가 크다. 다양한 전자소재와 고강도·경량화 소재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민첩한 시장 진입을 위해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딜 소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석유기업들의 석유화학
진출은 불가피한 선택...
JV등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고, M&A를 통해
스페셜티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함

”

2 M&A를 통한 원료 다변화 전략을 검토하라

과거에는 중동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 석유에서 생산되는 납사의 가격경쟁력이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 에탄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미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셰일가스가 대량 생산되면서, 이러한 공급체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면 에탄 크래커(ECC)의 생산마진이 납사 크래커(NCC)의 생산 마진을 뛰어넘었고, 미국에서 범용석유화학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대규모 ECC 신증설 붐이 일어났다. 바야흐로 '석유화학산업'이 아닌 '가스화학산업'의 시대가 열리며 다수의 NCC 기반 석유화학 기업들도 셰일업체 인수나 ECC 신증설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유가 급락은 이러한 흐름에 다시 한번 반전을 가져오고 있다. 급기야 유가가 한때 20달러 선으로 붕괴되었고, 래깅 효과(Lagging effect, 추가적인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수요처의 구매 지연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NCC 업체들의 수익은 악화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NCC 기반 석유화학업체들에게는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저유가가 장기화되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셰일업체의 도산 위험이 증가하고,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ECC 기반 업체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정치적·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유가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는 셰일가스와 ECC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지만, NCC 위주의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업들은 여전히 원료 다변화를 위해 ECC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북미 중심으로 셰일가스가 생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셰일가스 개발이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ECC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셰일가스 성분 중 비중이 작은 에탄(1~10%)이 이용되고 있으나,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셰일가스 성분의 대부분(70~98%)을 차지하는 메탄과 프로판, 부탄이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셰일가스의 효율성이 급격히 상승해 석유화학산업은 다시 한번 구조적인 변화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저유가로 셰일업체가 위험에 처한 지금이 오히려 셰일업체와 ECC 자산 인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M&A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유가로 인해 ECC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료 다변화는 필요... ECC 자산인수 기회를 모색해야 함

”

3 석유화학기업과 PEF의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M&A에 도전하라

경쟁구도 변화 등으로 기존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M&A를 통해 사업을 재편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섰다. 코로나19와 유가변동성 심화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만큼, 유럽 및 미국의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향후 규모가 큰 사업이나 원천기술을 가진 사업을 정리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 화학기업의 경영권 자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우량 사업부문을 원천기술과 함께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SK 종합화학은 글로벌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합병 시 이루어진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다우케미칼의 고부가 사업으로 평가 받는 에틸렌 아크릴산(EAA) 사업과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사업을 연이어 인수할 수 있었다.

적시에 글로벌 화학기업의 우량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석유화학기업 자체적으로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비 핵심 사업이나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등의 민첩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조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의 경우 몇몇 소수의 석유화학기업을 제외하고 글로벌 화학기업의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을 단독으로 인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전략 중 하나는 국내 석유화학기업이 PEF 운용사 등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글로벌 화학기업의 경영권 또는 우량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이 PEF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글로벌 화학기업의 경영권 또는 우량 사업부문을 인수하면, 인수자금 부담이 낮아져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PEF의 딜 소싱 역량과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KCC는 원익QnC와 PEF 운용사인 SJ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를 31억 달러에 인수했다. 해당 거래는 화학분야와 관련된 해외기업 인수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이다.

PEF 운용사 입장에서 국내 석유화학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글로벌 화학기업의 경영권 또는 우량 사업부문을 인수함으로써 투자 이후 기업 경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점차 포화되어 가는 국내 PEF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글로벌 화학기업의 우량 사업부문과 원천기술 인수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적시의 자금조달 위해 PEF와의 컨소시엄 고려

”

4 M&A를 통해 사업전환을 모색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준비하라

석유화학산업의 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여전히 화학산업의 중심은 ‘석유화학’이지만, 글로벌 유수의 석유화학기업들은 이미 다각화를 통해 종합화학기업으로 변신했고, 사업구조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석유화학으로 핵심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중심에는 배터리와 바이오 산업이 있다. 배터리의 경우 자체 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하고, 공급체인의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M&A가 이루어지는 반면, 바이오 산업의 경우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사업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정밀의료의 수요증가로 인해 레드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은 예전부터 높게 평가되었으나, 코로나19를 비롯해 2010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는 레드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와 경작지 면적 감소로 인한 식량문제,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그린바이오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글로벌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화이트바이오 분야도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바이오 시장의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린바이오의 경우 M&A를 통해 이미 시장의 과점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늦었다고만 볼 수 없다. 바이오 산업의 시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워낙 큰 만큼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스미토모케미칼과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정 시장을 겨냥한 M&A를 통해 그린바이오 시장에 침투하는 방법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M&A 과정에서 독점규제로 인해 매물로 등장하는 경쟁력 있는 바이오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바이오플라스틱이나 바이오연료와 같은 화이트바이오 분야는 아직 본격적인 M&A 경쟁이 시작되기 전으로, 인수 의지만 있다면 한발 앞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딜 소싱이 가능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일정 주기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기 순환형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범용 중심의 석유화학 산업구조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다 보니 M&A를 통한 미래 성장전략 수립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석유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이클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다시 한번 M&A를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은
M&A를 통해 수차례
트랜스포메이션을 단행.
미래 신사업 준비를 위해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인
M&A에 나서야 함

”

Business Contacts

석유화학산업 전문팀

Deal Advisory

하병제 부대표 T: 02.2112.0715 E: bha@kr.kpmg.com	고병준 상무 T: 02.2112.0742 E: bgoh@kr.kpmg.com
---	---

Audit

변영훈 부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이학률 부대표 T: 02.2112.0844 E: hakryullee@kr.kpmg.com	한상일 부대표 T: 02.2112.0832 E: sangilhan@kr.kpmg.com
---	--	---

장석조 전무 T: 02.2112.0877 E: seokjojang@kr.kpmg.com	김철 전무 T: 02.2112.0242 E: cheolkim@kr.kpmg.com	김현중 상무 T: 02.2112.7632 E: hyunjoongkim@kr.kpmg.com
---	--	---

이정수 상무 T: 02.2112.0572 E: jungsoolee@kr.kpmg.com	지동현 상무 T: 02.2112.7662 E: dchi@kr.kpmg.com	김연정 상무 T: 02.2112.0297 E: yeonjungkim@kr.kpmg.com
---	---	--

kpmg.com/kr